



PRIME MINISTER

MESSAGE FROM THE PRIME MINISTER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we mark 6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we celebrate the enduring friendship between our peoples and the bonds between our nations.

Ours is a deep and historic relationship – underpinned by shared liberal democratic values, common strategic interests, strong economic ties, and extensive community links.

Our ties were forged during the Korean War, when more than 17,000 Australians fought to defend the democracy and freedom of the Republic of Korea. Tragically, 340 lost their lives.

Australia was proud to be the second nation – after only the United States – to come to Korea’s aid in those dark days. And we’re proud to have contributed to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years since, just as Korea has contributed to our own prosperity.

Today, our countries are closer than ever, and Australia’s multicultural society benefits enormously from the more than 100,000 people living here who have Korean heritage.

Of course, the past year has been a very hard one for both our countries, and for the world.

But we can be proud of our respective efforts in managing the virus, and the economic fallout. In fact,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the only two countries at the G7 Plus Summit earlier this month whose economies are larger now than before the pandemic.

This reflects our strength and resilience, as well as our mutually beneficial partnership.

I enjoyed a very productive meeting with President Moon in the margins of the Summit to further strengthen the deep partnership between our two nations, including by elevating our relationship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his is a partnership which is already thriving.

Our countries have complementary economies with deep trade, investment, tourism and education links.

We're also cooperating on science and innovation, including by pursuing a low emissions technology partnership to drive ambitious and effective action on climate change.

And we're working in partnership to support a free, open and resilient Indo-Pacific region.

On this milestone anniversary, I honour the longstanding ties between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I look forward to deepening our friendship in the years ahead.

We have worked together for 60 years and more, and I have no doubt our relationship will continue to go from strength to strength.

감사합니다 – thank you.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ue ink, appearing to read 'Scott Morrison', is positioned above the typed name.

The Hon Scott Morrison MP
Prime Minister of Australia

July 2021

호주·대한민국 수교 60주년 기념 스콧 모리슨 총리 담화문

호주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변함없는 양국 국민의 우호 친선과 깊은 유대관계를 축하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동의 전략적 이해, 긴밀한 경제협력, 광범위한 공동체간 교류를 기반으로 깊게 뿌리내린 양국 관계는 실로 역사적입니다.

양국 관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수호를 위해 17,000여명의 호주 장병이 참전했던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타깝게도 이 중 340명의 호주 장병이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호주는 고난에 빠진 한국을 돕기 위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에 참전한 국가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번영에 한국이 기여해 왔듯, 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호주가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호·한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며, 십만 명이 넘는 한국 교민이 다문화 국가인 호주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호주와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경제 타격에 대처하는 데 있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개최된 G7 플러스 정상회담 참가국 가운데 코로나 이전 대비 경제 성장을 이룩한 유일한 국가가 바로 호주와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양국의 저력과 회복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양국간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방증합니다.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호·한 양자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포함하는 양국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건설적인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미 견실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역, 투자, 관광 및 교육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배출 기술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담대하고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등 양국은 과학 및 혁신 분야에서도 공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복원성을 갖춘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지하기 위한 협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교 60 주년을 맞아 양국의 오랜 유대관계를 기념하며, 앞으로도 호주와 대한민국 간 우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길 고대합니다.

60년이 넘는 기간 이어져 온 양국관계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더욱 강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2021년 7월